2020년 중고교 새 역사교과서 자유민주주의→민주주의 대체

교육부,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 행정예고

'십자군 전쟁' 등 학습요소 일부 수정반영

중·고교생이 2020년부터 배우게 될 새 역사교과서에서 기존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민주주의'로 대체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빠지고,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중고교 역사과 수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이번 행정예고안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지난달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 개발' 정책 연구 최종 보고서와 비교해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다.

중학교 역사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한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한 후 한국사 영역을 학습하도록 했다. 중학교 역사의 한국사 영역은 고종 대신 섭정했던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까지인 전근대사를 중심으로 고등학교 한국사는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이후(근대)와 1945년 광복부터(현대)를 다루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구성했다. 중고교 한국사 학습의 연계성을 유지하고 중고교의 한국사 교육을 차별화한다는 취지다.

평가원의 집필 기준 시안과 마찬가지로 기존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민주주의'로 대체하도록 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표현은 빼도록 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대한민국 수립' 표현 역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도록 했다. 다만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전쟁'이란 표현은 집필 기준이 아닌 교육과정의 한 요소로 교육과정상의 목표나 내용을 분석하고 세분화한 성취기준에 포함됐다.

다만 평가원의 집필 기준 시안에 비해 교과서 제작 시 꼭 반영해야 하는 '학습요소' 분량이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습요소가 많으면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아져 자칫 암기식 학습으로 흐를 수 있어 꼭 필요한 학습요소만 남겼다"고 말했다.

일부 학습요소는 최근 학설을 반영해 수정됐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이라는 표현은 '서부유럽과 이슬람 세력의 충돌'로 바뀌었다. "십자군은 유럽과 기독교 중심의 사고를 반영한 것"이라는 최근 학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이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취지와 달라 학교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사과 교과서 집필기준안에는 '자유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로 서술하도록 돼 있는 반면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어서다.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는 '통일교육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뉴시스

진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0일 LG CNS가 주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코딩 지니어스'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유학기제 SW교육, 코딩 지니어스 운영

진안교육지원청, LG CNS 주관 사회공헌 프로그램

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인숙)은 지난 20일 LG CNS가 주관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코딩 지니어스'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6개 중학교 115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코딩 지니어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종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다. 모둠 활동과 프로젝트 방식으로 진행한 이날 프로그램은, 스크래치를 이용한 알고리즘 이해와 구현, 앱인벤터를 이용한 앱 제작, 메이커과정을 위한 기본지식 습득과 그 활용, 아두이노의 개념 이해와 다양한 센서 활용 과 같은 JAVA, EV3, 앱 만들기 등의 SW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학생들은 체험형 코딩교육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과정을 점검하고, 각 모둠별로 팀장, 로봇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테스터 등의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과업을 수행하였다. 송동하(진안중1년) 학생은 '그동안 컴퓨터는 게임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였는데 다양한 앱을 실제로 제작하면서 신비롭다는 것을 느꼈다'며 SW교육이 얼마나 흥미로운지 새롭게 경험했다고 말했다.

LG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은 정보화 소외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의 무료 SW 교육 Coding Genius를 그동안 서울 소재의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데,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진안에서 운영하였다. LG CNS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하루 전 노트북 등 학습기자재를 설치하고 이날 프로그램 진행 강사와 운영팀 등 24명을 파견하였다. LG는 이번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여 향후 전국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교육청 대학별 대입전형전문가 양성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수험생들의 대학 지원 경향 분석한 결과, 다수의 수험생이 지원하는 서울 주요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 등의 대입전형 분석을 통해 대입전형전문가를 양성하고, 특화된 대학별 지원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단위학교별 대입전형전문가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입전형전문가 연수는 도내 44개 고등학교에서 최대 4명까지 신청을 받아 총 150명이 지원하였으며, 22일부터 23일까지 그룹별 집중 연수로 진행된다. 단위학교별 교사들은 서울주요대학(A), 서울주요대학(B), 과기원·교대(C), 지방 주요거점대(D) 등 4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되며, 그룹별 대학의 대입전형 주요사항에 대한 특강과 함께 전형의 집중 분석 및 토론을 통해 참여한 교사들은 대학별 대입전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번 연수과정은 교사의 대학별 대입전형 전문가 양성을 통해 대학진학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집중상담 및 맞춤형 진학지도로 수험생에게 대학 입시지도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학별 전형방법의 다양화에 따른 진학지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입정보 제공, 수시,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전북에서 세계로… 전주대, 글로벌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전주대 LINC+사업단 - 전북 벤처기업협회, '전북 중소벤처리더스' 포럼 설립

전주대(총장 이호인) LINC+육성 사업단은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회장 이인호)와 공동으로 '전북 중소벤처리더스 포럼'을 결성하고 오는 26일 전주대 하림미션홀에서 발대식과 함께 초청 강연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결성되는 '전북 중소벤처리더스 포럼'은 침체된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고 우수벤처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결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대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활로개척을 모색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은 산업 특화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협력 · 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야별 기업에 적합한 전문적인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강화와 더불어 프로젝트 추진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전주대학교는 도내 유일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문 지식과 산학협력 노하우를 도내 중소벤처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전주대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중소벤처기업으로의 도약과 경영리더십의 함양을 위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최고경영자과정(AMP), 실무자과정 및 4.0 중소벤처혁신성장 세미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9월 4일 개강을 앞둔 전북중소벤처리더스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필수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설계한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역량과정이 담겨질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LINC+ 사업단 주송 단장은 "기존 전통적인 기계제조 중심의 산업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농식품산업, IT산업에 초점을 맞춰 지역맞춤형 기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 발대식 행사에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을 위한 특별초청강연회가 전주대학교 가족회사와 도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열릴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도내 중소벤처기업은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담당 최하정 220-4736)에 신청하면 참여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현장노동청 설치 운영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지청장 이한수)은 1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4주 동안 지청 내 고객지원실에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운영되는 현장노동청은 고용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또 현장노동청은 고용노동행정의 개선사항을 직접 듣는 장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제도 개선, 임금격차 완화, 청년일자리대책,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안전망 강화, 일·생활균형 등 고용노동행정 8대 핵심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다.

정책제안은 군산지청 고객지원실 현장노동청 창구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또는 e-현장행정실(eboard.moel.go.kr)에 개설된 '현장노동청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군산=김정훈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한국학진흥사업 최종 단계 진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가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추진하는 한국학진흥사업 3단계에 진입했다. 한국학진흥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엄정한 심사와 보고서 평가를 통해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2년 한국학진흥사업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분석 및 자료 수집 연구(연구책임자 홍성덕 교수)'에 선정된 이후 1·2단계(6년)를 거쳐 최종적으로 3단계(4년)에 진입에 성공했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는 앞으로 4년 동안 약 9억 여 원을 지원받아 19~20세기 호남·호서지역 근현대유학자의 사회관계망 구축을 목표로 근현대 유학관련 자료를 조사·수집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일제 강점기 이후 유학 전통의 계승과 변용에 대한 탐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동안 조명되지 않았던 유학자들의 사상과 삶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평가 한다. 근현대 유학자 사회관계망 DB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국민서비스를 할 계획에 있다.

특히 본 연구 사업은 19세기 이후 호남·호서 지역 유학자의 종합적인 인명데이터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학자 상호간의 관계성에 대한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근현대 유학 연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전학연구소 홍성덕 교수는 "2012년부터 쉼 없이 달려 온 이 연구 사업이 마지막 단계를 무사히 통과하여, 처음 계획대로 2022년까지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